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공공기관 청년인턴 1만명 채용 계획

- 기재부는 16일 '2011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'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정원의 일부를 인턴으로 채용하고 추후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청년 인턴을 포함시키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 - 284개 공공기관이 내년 정원의 4% 수준에 해당하는 1만명의 인원을 청년 인턴으로 채용할 계획임.
 - 인턴의 정규직 채용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턴을 선발할 계획임.
 - 단순 사무보조나 잡무는 지양하고 명확한 업무를 부여하도록 했으나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는 부여하지 않도록 했으며, 취업교육을 확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되 1개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.
 -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의 20% 이상을 인턴 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공공기관에 권장하는 방안도 계획 중임.
 - 정부는 인턴채용 실적과 정규직 전환 실적을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며, 특히 우수 인턴은 정규직 채용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서류전형 등을 면제하는 등 우대조치를 시행할 예정임.
 - 취업시험을 보는 인턴에게는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일정 비율의 우수 인턴에게 입사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임.
 -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인턴에 대해서는 공공직업알선기관에 직업알선을 의뢰하는 등 취업지원도 강화할 예정임.
-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기관별 세부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주기적으로 청년인턴제 추진상황과 실적을 점검할 계획임.
 - 공공기관별 청년인턴 채용규모와 시기, 정규직 전환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22~23일 열리는 '201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'를 통해 세부적인 기관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임.

(284개 공공기관 청년인턴 1만명 채용 등, 연합뉴스 등, 12/16)